

고객사 인터뷰

# VM 이미지 백업 스토리지 구축

주식회사 포메탈



## FORMETAL

산업 분야  
제조업

도입 시기  
2020년 6월

이슈 및 요구사항

- 장비 노후화 및 도입 솔루션 미 연동 문제 발생
- 외산 제품 기술지원 반응 속도 및 지원 수준 미비

도입 효과

- 최적의 비용으로 대규모 VM 백업 스토리지 환경 구성
- 복잡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최적화된 시스템 커스터마이징으로 운영 효율 증가
- 신속하고 수준 높은 기술지원 서비스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고객사 소개

포메탈은 국내 최고 수준의 단조 공업 기술을 자랑하는 단조 정밀기계 부품 제조사입니다. 자동차, 조선, 산업기계, 방위 등 전통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풍력 발전과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4차 산업 혁명 주도 기업 중 하나입니다.

포메탈은 1969년 창사 이래, 빠른 속도로 국내 단조 산업계의 중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0년 코스닥 상장 이후 현재는 약 800여 종의 단조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 국내외 150여 곳의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풍력 발전 및 로봇 산업의 성장으로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부품 도면 데이터 등 사내 중요 데이터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자동화 및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네트워크 인프라의 복잡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기존 상황 및 이슈

포메탈은 스마트 팩토리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장 전산 시스템을 가상머신에 탑재하고, 8년 이상 사용하던 기존 외산 백업 스토리지를 VM 이미지 백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스토리지 장비가 노후화되고, UI 및 백업 정책 설정 등 제품 사용이 다소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기술지원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형 외산 벤더의 제품인 만큼 성능이나 안정성 등은 만족스러웠으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격이나 유지보수 비용 또한 높았습니다.

### 요구사항

포메탈은 노후화 된 장비 교체의 일환으로, VM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고 자사 전산 환경에 최적화 하여 구축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제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지원 요청이 용이하면서 기술력을 보장받은 제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글루시스의 AnyStor Enterprise를 백업용 스토리지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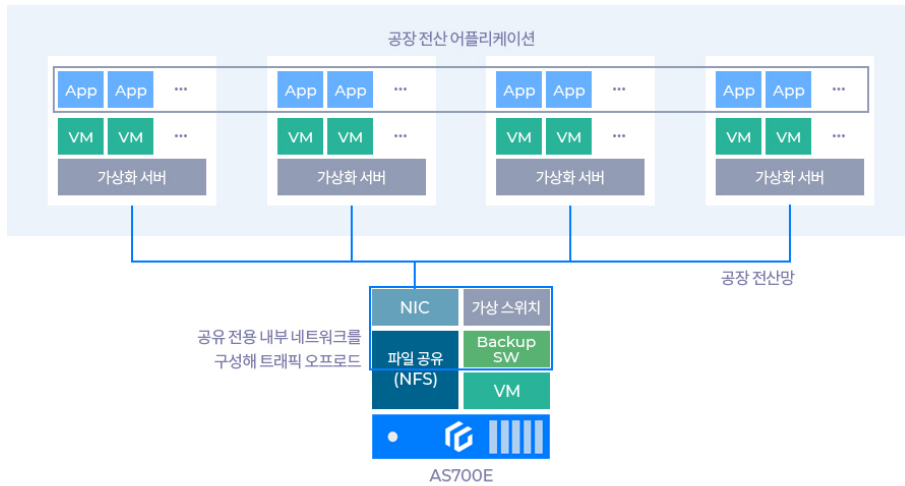


“ 우리 같은 제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성능이나 비용도 중요하지만,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이 있지 않으면 다운타임에 따른 손실이 막대합니다.”

- 포메탈 전산팀 천세영 부장

구축 내용

포메탈은 글루시스의 AnyStor Enterprise 700E를 백업용 스토리지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700E 모델에 가상화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 별도의 서버 없이 파일 공유와 가상 시스템 환경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가상머신에 구성된 백업 솔루션은 가상화 클러스터들로부터 VM 이미지를 읽어와 AnyStor Enterprise에 백업합니다. 700E의 가상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 가상머신과 스토리지 간에 공유 전용 네트워크를 생성, 백업 트래픽을 전산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부하를 최소화 하고, 추가 장비 증설 없이 스토리지의 풀 퍼포먼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입 효과

포메탈은 글루시스의 AnyStor Enterprise를 백업 스토리지로 구성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운영 효율과 기술 지원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포메탈의 천세영 팀장은 “기존에는 제품 활용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기술 지원 대응 속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제품 도입 시 포메탈의 전산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술력과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메탈은 최근 도면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폭이 매우 빠르고, ISO 9001 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원격지 DR 구축 이슈 등이 발생함에 따라 AnyStor Enterprise의 추가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포메탈 전산팀 천세영 부장

